

8 종합

# 기숙사 택배 물량 증가 분실·오인 수령도 늘어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서울】“택배 잘못 가져가신 분? 연락해 주시고 제자리에 놔 주세요” 행복기숙사 단체 채팅방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내용이다. 기숙사로 오는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분실, 오인 수령, 무인 택배함 사용 저조, 한정된 택배 보관 공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행복기숙사로 오는 택배는 모두 기숙사 건물 1층 창고에 보관한다. 창고에는 택배사별로 구분된 택배 보관함이 있으며 번호로 구분한다. CJ대한통운과 쿠팡과 같이 물량이 많은 택배사는 여러 개의 보관함이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창고 밖 복도까지 늘어져 있다.

행복기숙사 A동은 928명의 인원을 수용한다. 수치상으로 928명의 택배가 모두 1층 창고와 무인 택배 보관함에 놓인다. 이달 7일 기준, 10평 남짓의 창고 안에는 총 331개의 택배가 도착해 있었으며 37개의 택배는 공간이 부족해 창고와 로비를 연결하는 복도에 줄지어 있었다.

그중 186개 택배 수용이 가능한 무인 택배 보관함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택배 기사가 직접 보관함에 넣어야 하기에 수령인이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창고에 두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택배 운송 차량이 다녀간 뒤 창고는 선반으로는 모자라 바닥에까지 발 디딜 틈 없이 택배가

늘어져 있는 상황이다.

좁은 택배 창고 문제도 있지만, 택배를 바로 찾아가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분실이 잦아진다. 하지만 물량이 많아지면 기숙사 관리인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행복기숙사 관리인은 “택배 물건이 오면 바로 찾아가야 하는데 어떤 물건은 한 달 이상 창고에 있기도 해 직접 연락해야 찾아가는 일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행복기숙사에 거주 중인 노휘연(행정학 2023) 씨는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창고에 가면 택배가 너무 많아 찾기 어렵다”며 “차라리 다른 사람이 택배를 가져간 뒤에 찾는 게 쉬워 바로 가져가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숙사생은 택배를 분실했을 때, 보통 기숙사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택배를 찾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럼에도 찾지 못할 경우, 행복기숙사 측으로 신고해 CCTV 열람을 신청한다. 이후 캡스 직원이 행정실로 방문해 CCTV를 열람한다.

행복기숙사 행정실에 따르면 CCTV 확인 결과, 분실 신고 대부분은 비슷한 이름 혹은 포장으로 인해 다른 택배를 가져가거나, 택배 기사와의 소통 문제 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 측은 “택배에 본인 주소를 정확히 기록하고 택배 바깥 및 절도 등에 관한 경고를 진행해 올바르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영대학 축구 동아리 '한발'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고향대회운영위원회 제공)

## 20주년 맞은 고향컵 축구, 경영대 '한발' 우승

김유성 기자 yusung7179@khu.ac.kr

【서울】 고향컵이 지난 3일 농구 결승전을 끝으로 약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고향컵은 교내 중앙동아리, 단과대 동아리, 과 동아리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체육 행사다. 종목은 농구, 야구, 축구다.

총 20팀이 참가한 농구에서 호 텔관광대학 농구 동아리 '무브먼

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총 7팀이 참가한 야구에선 중앙동아리 '브레이브스'가 정경대학 야구동아리 '구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브레이브스 김정현(사회학 2022) 감독은 “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뭉쳐주었고 매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총 23팀이 참가한 축구에선 경영대학 축구 동아리 '한발'이 행정

학과 축구 동아리 '금시조'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발 김지혁(경영학 2020) 회장은 “작년에 이어 금시조라는 강팀을 2년 연속으로 만나 우승을 차지해서 뿌듯하다”며 “이번 대회를 깔끔하게 운영해주신 고향대회 운영위원회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운 날에 항상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보내준 학생들 덕분에 고향컵을 들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고향대회운영위원회 김동현(미디어학 2021) 위원장은 “여러 선수가 스포츠를 통한 즐거움을 얻게 돼 행복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거듭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고향컵 내내 스포츠로 울고 웃었던 선수들 표정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MAGNOLIA HOUSE

## 경희 후원의집 유치 이벤트



후원의집 유치하고 선물 받으세요~!

유치해 주신 분께는 유치하신 후원의집 '5만원 이용권'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상시 운영
- 후원의집 유치 과정
  - ① 단골가게에 후원의집의 가치와 목적을 전달하며 가입을 추천
  - ② 사장님의 의사결정 후, 참여자가 전화 또는 구글폼으로 유치이벤트 신청
  - ③ 대외협력처에서 가게 방문 후 후원의집 유치 실행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벤트 참여 QR 신청



이벤트 참여 QR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서울캠퍼스) | 02-961-0932~3 | give@khu.ac.kr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108호